



# 사람 냄새나는(?) 교회소식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78년 7월 23일 서울주보 3면의 교회 소식란, <각처에서 열매 맺는 소박한 신앙>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전 건축기금을 낸 두 가지의 사례를 소박(?)하고 너무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축 중에 있는 하느님 성전을 위해 각 지역의 교우들은 각자 나름대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봉헌하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느님께 소박한 정성과 열심한 마음으로 가진 전부를 털어놓는 신자들이 있어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 금호동성당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신자 부부는 마석성당의 건립을 위해 852,220원을 희사했다. 별로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이런 목돈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교형자매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기만 하다.

· 청담동성당의 박 요세피나 씨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린 두 자녀를 키우기에 벅찬 생활 속에서도 도곡동성당 건립기금으로 10만 원을 봉헌했는데 더 바칠 능력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유물인 결혼반지(금반지 2돈반)를 바쳤다고 한다.

서울대교구의 신앙공동체가 마치 한 가족같이 느껴진다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요? 너무 자세히 묘사해서 마치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화에서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대화에서 깊이와 느낌이 반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해도 자칫 길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꼰대’

## 교 회 소 식

### ◎ 각처에서 열매 맺는 소박한 신앙

새로이 건축중에 있는 하느님 성전을 위해 각 지역의 교우들은 각자 나름대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봉헌하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느님께 소박한 정성과 열심한 마음으로 가진 전부를 털어놓는 신자들이 있어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 금호동 본당의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신자 부부는 마석성당 건립을 위해 852,220원을 희사했다. 별로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이런 목돈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교형자매가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기만 하다.

☆ 청담본당의 박 요세피나씨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린 두 자녀를 키우기에 벅찬 생활속에서도 도곡동 성당 건립기금으로 10만원을 봉헌했는데, 더 바칠 능력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유물인 결혼반지(금반지 2돈반)를 바쳤다고 한다.

### 여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여고생들의 심성발달과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강좌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여고생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 아 래 —

1. 제 목: 나는 누구인가(나의 가능성 발견)
2. 기간 및 인원

차	목금토	시 간	인 원
1	7 월 272829	0930-17:00	50명
2	8 · 3 4 5	"	"
3	8 · 101112	"	"

3. 장소: 샬트르 성마로로 수녀원 (776-0147-9 명동성당 뒤)
4. 참가비: 1인당 3,000원(점심 간식 자료비 강사료 포함)
5. 신청: 7월3일부터 선착순 (전화신청은 불가함)

라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어쨌든 40여 년 전의 주보에 나온 교회 소식은 사람 냄새가 나서 오히려 신선하고 감미롭게 느껴집니다. 위의 사례는 특별히 자신의 본당이 아닌 다른 본당 건립에 봉헌한 경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흥미로운 광고도 재미있습니다.

<여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왜 여고생으로 제한했을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당시의 분위기가 고등학교의 남녀 공학도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것을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고생들만을 위한 강좌를 준비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주보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여고생들의 심성 발달과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강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나의 가

성 발견)입니다. 당시의 강좌에 모집 인원대로 모두 신청했으면 150명의 여고생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강좌에 참석했던 여고생들은 대략 55세 이상의 중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교육을 받으면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그 시절 그 모임 안으로 상상의 날갯짓을 해봅니다.